



광주시 서구 빛고을 국악전수관이 진행하는 '목요 국악 상설 공연'(무료)이 오는 11일로 200회를 맞는다.

빛고을 국악전수관 '목요 열린 국악 한마당' 200회

'국악 광주' 빛내는 문화의 산실

광주시 서구 풍암동에 위치한 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이하 전수관)은 광주의 유일한 국악 전문 공연장이다. 전수관은 객석이 156석에 불과한 '작은' 공연장이지만 전통 가곡의 심대를 형성화한 독특한 무대는 이곳이 우리 전통 음악의 산실임을 한번에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전수관을 문을 연 건 지난 2002년 10월. 이듬해 5월부터 열리기 시작한 '목요 열린국악한마당'(이하 국악한마당·오후 7시)이 오는 11일로 200회째를 맞는다.

전통적인 국악의 고향이라 알려졌지만 최근 들어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 지역에 비해 침체 분위기가 느껴지는 광주 지역에서 '국악 한마당'은 지역 국악계를 살찌우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당초 '토요상설공연'으로 시작됐다 주 5일제가 시작된 지난 2004년부터 이름을 바꾼 '국악 한마당'에는 지금까지 판소리, 국악 관현악, 실내악, 가야금·아쟁·거문고를 포함한 독주 악기 등 다양한 장르가 공연됐다.

눈에 띄는 이들은 판소리 명창들이다. 국가 지정 무형 문화재인 송순섭씨를 비롯해,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 수상자인 주수연·박준평, 김향순, 방운수, 박수현, 전인삼씨 등이 '심청가', '수궁가' 등 판소리 다섯바탕을 선보였다. 또 가야금 연주자 성심은·상에순·문명자씨, 강령탈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광주시립국악공연단, 국극단 등 시 산하 단체들이 무대에 올랐던 데서 벗어나 2005년부터는 '지음', '더빙' 등 젊은 국악 단체들의 공연이 눈길을 끌었다. 또



강령탈춤 공연

판소리·기악·무용 등 다양한 장르 공연 6년간 2만7천여명 관람 ... 대중화 한몫

능력있는 젊은 연주자들을 초청, 독주회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 국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관객들도 다양한 국악 장르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모든 공연이 무료로 진행되고 지금까지 공연장을 찾은 이들은 2만7천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최근 음향 시설 등을 보완하기는 했지만 '국악 한마당'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 올해의 경우 예년에 비해 70%가 상승한 1천 400만원이 투입되기는 했지만 연 40회의 공연을 진행하기에는 작은 액수다. 사업비가 적다 보

니 출연자들에게 35만원 수준의 개런티를 지급하는 데 그쳐 아쉽다.

전수관이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수요 상설 공연'의 사업비가 7천 600만원에 이르는 걸 감안하면 주관처인 광주시 서구청의 좀 더 과감한 투자가 요청되는 부분이다.

전수관측은 퓨전 국악으로 운영되는 '수요상설 공연'과의 차별화를 위해 '국악 한마당'은 순수 전통 국악 위주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 퓨전 국악 등이 유행하고 있지만 그 기반은 바로 '순수 전통 음악'에 있기 때문이다.

'국악한마당' 무대에 선 적이 있는 국악인 A씨는 "국악 독주회가 꾸준히 열리는 등 국악인들의 발표 무대를 꾸준히 진행하는 전수관이 있어 국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지역적인 무대 정비와 개런티 인상 등이 여건이 채워진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밖에 전수관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국악문화학교'를 개최하고 있다. 판소리, 가야금 등 8개 분야의 초·중급 과정으로 모두 16개반이 운영되며 지금까지 모두 4천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

또 문화학교 수강생들로 구성된 '빛소리 예술단' 20여명은 1년 20차례 정도 정기공연과 불우시설 위문 공연 등을 펼치며 문화나눔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전수관은 4월 199회 공연으로 선미숙씨 판소리 '흥보가' 완장을 준비했으며 200회 공연은 대금 연주자 최성남 초청 무대로 꾸민다. 062-350-4556.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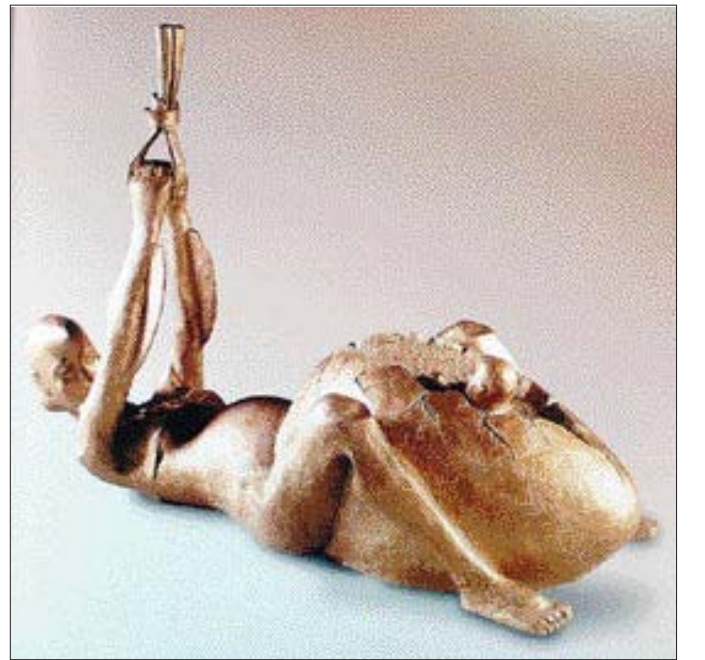
청동에 담은 생명의 신비

동신대 김왕현 교수 국제아트페어 작품

생명의 신비로움을 담은 청동 조각품을 선보이고 있는 김왕현(동신대학교 귀금속디자인학과 교수)씨가 오는 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아트페어에 초대됐다.

국제아트페어는 미국, 스페인, 인도, 중국의 해외 갤러리들이 대거 참여해 1천여 점의 작품을 전시하는 국제 미술시장이자, 김씨는 이번 아트페어에 인물의 움직임을 단순화시킨 대신 몸의 곡선을 최대한 살린 '우리의 꿈은 저곳에' '탄생-새로운 세계' 등의 근작들을 내놨다.

김씨는 헝가리, 폴란드, 독일 등지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스위스 제네바 국제 미술제 및 벨기에 앤트 국제아트페어, 스페인 MAC 발 데라진 등에 참여했다. 현재 한국조각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나주시 산포면에 '금비 김왕현미술관'을 운영 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탄생-새로운 세계'

"진도 통나무배 '일본 고선박' 가능성"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관장 성낙준)은 1992년 진도군 고군면 벽파리 수중 갯벌에서 발굴한 소위 '진도 통나무배'를 최근 복원한 결과 14세기 무렵에 축조한 왜선

(倭船)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그 근거로 이 통나무 배의 독특한 구조를 들었다. 즉, 길이 19m, 너비 2.34m인 이 배는 속을 파낸 반원형 녹나무 3재(材)를 결구(結構)한 다음, 상부에 돛대와 선실 등을 얹은 형태를 하고 있다.



진도 통나무배와 유사한 구조의 일본 가마쿠라시대 통나무배.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제공>

이런 한선(韓船)이 알려진 적은 없기 때문에 '외국선박'이라는 점에서는 그동안 이론이 없었다. 다만, 중국 푸젠성 연안 일대 선박에서 흔히 보이는 '보수공'(保壽孔)이라는 배의 안전항해를 위해 동전을 넣어두는 구멍이 발견된 점을 중시해 그동안에는 중국 고선박으로 추정했

을 뿐이다. 전시관은 이 통나무배가 왜선일 가능성을 비교적 조심스런 어조로 제기했으나, 일본측 고선박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왜선일 가능성이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한다. 진도 통나무배와 비교대상으로 일본 고선박은 5척이며, 이 외에도 일본 고대 회화에 나타난 선박도 검토했다. 이들 일본 선박은 시대로 보면 모두 12-14세기 가마쿠라(鎌倉) 시기에 해당한다. 이 중 1878년 이타치강 출토 고선박(길이 11.6, 폭 1.2m)은 남은 사진자료를 검토할 때 규모만 다를 뿐 거의 모든 구조가 진도배와 흡사하다. /연합뉴스

'소안도 문학축전' 6일 완도서 개최

문학예술인 30여 명 참석

한국문학평화포럼(회장 김영현)이 오는 6일 오전 10시30분 함경도 북청, 경상도 동래와 함께 3대 함일 운동지로 꼽히는 안도군 소안도에서 '소안도 문학축전'을 개최한다.

이번 문학축전에는 소설가 김영현·강기희씨, 시인 정용국·이승철·이상국·홍일선·고영서·조진태·박설희·이지담·차주일·조성국씨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문인들이 참석해 평화시를 낭송할 예정이다. 이밖에 '김기인과 스스로모임' 등의 출 공연과 소안도 중·고등학생들의 청소년 시낭송, 포크가수 '인디언수니' 등의 노래 공연도 예정돼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읽은 책 기증하면 책값 50% 돌려줘

독자들이 구입한 책을 다시 서점에 기증하면 책값의 일부를 환불해 주고 기증 도서는 산간벽지 주민에게 전달하는 독서 운동이 시작됐다.

한국출판인회의와 NHN, 교보문고, 도서관만들기재단 '작은도서관 만드는 사람들'은 독자들이 기증한 도서를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북리펀드'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북리펀드 운동은 매달 출판인회의가 선정된 도서 20종을 대상으로 전국 교보문고와 프란티 매장에서 책을 구입한 독자가 나중에 교보문고에 책을 반납하면 구입한 책값의 50%를 돌려주고 반납된 책은 NHN이 후원하는 전국 마을 도서관과 문화 소외지역에 기증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합뉴스

movies 인기영화 추천은 지금 보십시오

Happy Time

영화안내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관동국사거리 ☞에이1544-0600

1관	다크나이트 (154)	최고급판
2관	고사-피의중간고사 (154)	
3관	CJ7-장강7호 (전제)	
4관	섬머솔스리스 (154)	
5관	눈에는눈이에는눈이 (154)	
6관	다찌마와리 (124)	
7관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154)	
8관	스마트피플(124)/슈퍼히어로(124)	
9관	미드나잇 미트 트레인 (184)	

영화 하면 이수혁만 볼거라 했더니... (2008.08.31)
*이스트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에 한함) : 2시간 30분 초상시 정상요금 부과

—은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엔터 시네마

충정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CJ7-장강7호 (전제)	
2관	X파일 (154)	
3관	다크나이트 (154)	
4관	월드(전제)/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154)	
5관	고사-피의중간고사 (154)	
6관	다찌마와리 (124)/님은만곳에 (154)	
7관	미이라3 (124)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목의 주차장 300대 * 금.토 심야상영
* 여름학기특선 매일심야상영(8월10일까지) *
* 여름학기특선 매일심야상영(8월10일까지) *

황포시영 영화시영 * 예매: www.joybox.com /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병원과 아파트 사이) 해남점 (무역화관 뒷편)

1관	장강7호(전제)/미드나잇미트트레인 (184)	
2관	님은만곳에 (154)	
3관	슈퍼히어로 (124)/다크나이트 (154)	
4관	다크나이트 (154)	
5관	아기와 나 (124) / 다찌마와리 (124)	
6관	월드-더빙 (전제) / 엑스파일 (154)	
7관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154)	
8관	눈에는 눈 이에는 눈 이 (154)	
9관	고사-피의중간고사 (154)	
10관	미이라3-황제의무덤 (124)	

*호넛 최대 주차장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ARIS 전화예매 5천원영입 받음 *ARIS 1000원 *ARIS 1000원

새롭고 재미있는 영화시영 * www.cinua.co.kr / 1544-0070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미드나잇 미트트레인 (184)	
2관	아기와 나 (124)	
3관	미이라3 (전제)/CJ7-장강7호 (전제)	
4관	슈퍼히어로 (124) / 천상의미치마고도 / 엘리트스워드/블랙발론	
5관	눈에는눈이에는눈이(154)/다찌마와리(124)	
6관	고사-피의중간고사 (154)	
7관	다크나이트 (154)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1544-0070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씨너스특시 세무(연말세-20%114)

고려시영 고려시영 * www.hamcinema.co.kr / 1588-9120

하미 시네마

진대후문 하미스포렉스 ☞ 267-7777

1관	월드-지막(전제)/엑스 파일 (154)	
2관	아기와 나 (124)	
3관	미드나잇 미트트레인 (184)	
4관	다찌마와리 (124)	
5관	CJ7-장강7호(전제)	
6관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154)	
7관	고사-피의중간고사 (154)	
8관	다크나이트 (154)	
9관	눈에는 눈 이에는 눈 이 (154)	
10관	미이라3 (124)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무료) * 385 매일심야 * 이동통신사 & OK 캐시백 카드 할인 혜택 * 하미 수영장 288-5757 * 하미 불방정 282-0825 * 하미 골프장 251-5060 * 하미 당구장

새로운 기쁨 * www.zimacinema.com / www.jekinema.co.kr

제일 시네마

충정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고사 (154)	
2관	미드나잇 미트트레인 (184)	
3관	장강7호 (전제)/눈에는눈이에는눈이 (154)	
4관	다크나이트 (154)	
5관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184)/미이라3 (전제)	
6관	다찌마와리 (124)/눈에는눈이에는눈이 (154)	

* 무료주차 3시간 (공주세무서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227-1960